

# 보험업계 '각자 대표체제'로 전문성 강화... 실적성장 기대

교보생명 편정범 대표이사 취임  
2인 대표이사 체제→3인 체제로

미래에셋생명 김평규 대표이사 선임  
3인임 변재상 사장과 각자대표

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각자대표  
영업전략·경영기획 파트나눠 전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 김평규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총괄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 총괄 사장

보험사들이 새로운 경영 키워드로 '각자 대표' 체제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각자 대표 체제를 확대하거나 도입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문성 강화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달 26일 각자 대표 체제를 확대했다. 편정범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며 기존 2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바꿨다.

교보생명은 이전에도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과 윤열현 대표이사 사장을 통

한 2인 각자 대표 경영을 이어왔다.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의 중장기 기업전략을 짜는 전략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윤열현 사장은 경영지원·대의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새롭게 취임한 편정범 사장은 보험사업과 디지털 전환을 책임진다. 교보생명은 편 사장이 2018년부터 채널 담당 부사장을 지내는 등 보험 영업과 전략 기획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 달 24일 김평규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며 3

연임에 성공한 변재상 대표이사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에 나선다. 변 사장은 증권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 관리를 총괄한다. 김평규 사장은 영업 관리를 총괄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미 지난 2020년까지 변 사장과 하만덕 부회장의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왔다. 다만 지난해 말 하 부회장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대표이사 자리로 옮기며 변 사장 단독 경영 체제를 갖췄었다. 이번 김 사장의 취임으로 각자 대표 체제로 다시 전환한다.

현대해상도 지난해에 이어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조용일 대표이사 사장은 총괄 사장으로 영업전략 수립과 채널별 전략 기획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성재 대표이사 사장은 경영기획을 담당하며 디지털 신기술 도입 및 해외 신사업 시장 개척 등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박 대표가 7년간 회사를 잘 이끌어 왔다고 분석했다. 두 대표는 적극적인 영업을 통한 '내실있는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문성 강화 ▲회사안 정성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각자 대표 체

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각자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실적 상승과 시장 확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실제 업무 환경 속에서 각자 대표 체제 도입 이후 업무 관련 결재에 드는 시간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한 일 처리로 직원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idus0248@metroseoul.co.kr

## 은행·차주 모두 윈-윈 '연착륙 방안' 독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성수동 영업점 방문, 직원들 격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과 차주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5일 만기연장·상환 유예 및 연착륙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권이 만기연장한 금액은 3월 말 기준 143조원(44만9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2만4000건), 이자상환유예 1119억원(1만건)으로 총 152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 영업점 직원들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모습. /은행연합회

조1000억원(48만3000건)에 달한다.

특히 은행권은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연착륙방안은 상환유예 신청차주가 원할 경우 유예이자 또는 유예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 신한금융, 공동육아나눔 '꿈도담터' 조성

여가부 등과 사업추진 업무협약  
3년간 100억 투입 100곳 추가 개소

신한금융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여성가족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육아 나눔터 꿈도담터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중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예방 등 맞춤형 가정 초등생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101개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하

고, 1672명의 아동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신한금융은 앞으로 3년 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00개소의 신한 꿈도담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금융교육과 오조봇, 스피이크 등 교구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시설 유지 보수 작업 및 공기정화·소독·위생 장비 지원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신한 꿈도담터를 이용하는 부모와 아동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KB금융그룹,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이니셔티브·탄소회계금융협회 가입

KB금융그룹은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인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SBTi와 PCAF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C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글로벌 민간 협력체이다. SBTi에 가입하면 2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KB금융은 PCAF가 제시하는 방법

론을 활용해 그룹의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과학적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PCAF 지엘 린토르스트 이사는 "세계적으로 110 여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PCAF에 KB금융이 참여하게 되어 환영한다"며 "KB금융그룹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기로 약속하면서 모범적인 기후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넷 제로(Net-Zero)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 삼성카드, 업계 최초 CIO 100 어워즈 수상

삼성카드는 글로벌 IT 미디어·리서치 기관인 IDG(International Data Group)가 주관하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100 어워즈'에서 국내 카드사 최초로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CIO 100 어워즈는 IT 기술을 통해 높은 사업가치를 창출한 100개 글로벌 기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삼성카드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AI 마케팅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카드사 최초로 CIO 100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영석 기자 ysl@

삼성생명, 오늘부터 판매 개시

삼성생명이 자녀를 위한 실속있는 상품을 선보인다.

삼성생명은 태아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질병과 재해 등을 보장하는 '꿈나무 어린이보험'을 6일부터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대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꿈나무 어린이보험'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7년 출시 열흘 만에 18만3000여 건의 판매기록을 세운 '꿈나무 사랑보험'을 리뉴얼한 '레트로' 상품이다. 주보험 하나로 최대 30세까지 3대 진단은 물론 입원·수술·통원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먼저 3대 진단은 치료비 부담이 큰 다발성소아암(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등)을 포함한 암과 뇌혈

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이다. 입원과 수술의 기본적인 보장 이외에도 응급실 내원, 재해장해,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김스치료, 화상 등의 담보를 지원한다.

20년 만기 또는 30세 만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결혼자금이나 대학입학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기축적금도 지급한다.

생보업계 최초로 어린이보험에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도 보장한다.

'성장 케어 서비스'도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자녀 혹은 손주를 위해 실속있는 보장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